Homework#06

문제 정의

STL 컨테이너의 종류 중 하나인 vector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이전에 코딩했던 9장 10번 문제를 변화시킨다.

문제 해결 방법

1. 원소의 저장, 삭제,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클래스인 <vector>를 먼저 #include 시킨다

```
#include \(\string\)
#include \(\string\)
#include "Shape,h"
#include "Circle,h"
#include "Rect,h"
#include "Line,h"
#include \(\string\)
```

2. UI 클래스를 만들어 이전에 사용했던 메뉴, 삽입, 삭제에 대해 cin으로 값을 입력 받고 return으로 값을 도출하기 위해 cout, cin, return을 사용해 UI를 구현한다.

```
class UI {
  static int ni
public:
 static void start();
 static int menu();
 static int insert();
  static int del();
int UI::n = 0;
void UI::start() {
  cout << "그래픽 에디터입니다." << endl;
int Ul::menu() {
 cout << "삽입:1, 삭제:2, 모두보기:3, 종료:4 >> ";
  cin >> n;
  return n;
int Ul::insert() {
  cout << "선:1, 원:2, 사각형:3 >> ";
  cin >> n;
  return n;
int UI::del() {
  cout << "삭제하고자 하는 도형의 인덱스 >> ";
  cin >> n;
  return n;
```

3. GraphicEditor에 객체의 포인터를 관리하는 동적 배열인 v를 선언하고 STL 컨테이너의 요소를 순회 및 접근하는 요소인 Iterator it을 선언 해 v 벡터의 각 요소를 가리키도록 함.

```
class GraphicEditor {
    vector〈Shape*〉v;
    vector〈Shape*〉::iterator it:
```

- 4. 이제 삽입, 삭제, 모두보기를 구현해보자.(9장 10번 문제에 GraphicEditor에 기능이 쓰였던 그대로이니 뭐가 필요한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)
- 4-1. 모든 구현은 vector 클래스의 주요 멤버와 연산자 표를 보며 구현했는데, push_back(element)로 마지막 벡터에 요소를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 switch case문으로 구현한 대신 if elif 문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.

```
void insert() {
    int n = Ul::insert();
    if (n == 1)
       v.push_back(new Line());
    else if (n == 2)
       v.push_back(new Circle());
    else if (n == 3)
       v.push_back(new Rect());
    else cout << "입력 에러" << endl;
}
```

4-2. 삭제 부분인데 이는 erase(Iterator it) (벡터에서 it을 가리키는 원소 삭제, 삭제 후 자동배열 조정)을 이용해 v.begin()으로 첫 원소에 대한 참조 리턴부터 for 반복문으로 끝까지돌린 후 n과 일치하는 인덱스의 원소 값을 삭제 시키는 것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.

4-3. 모두보기 파트인데 이도 연산자에 size() (벡터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리턴)를 이용해 vector는 가변 길이 배열을 구현하는 클래스이므로 0부터 v.size()-1까지 반복문을돌려 paint()로 무엇을 그렸는지 도출시켰다.

```
void showAll() {
    for (int i = 0; i < v,size(); ++i) {
        cout << i << ": ";
        v(il->paint();
    }
}
```

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결과

솔직히 이번 문제는 아이디어라 할 것도 없고 <vector> 클래스가 하나부터 열까지 편하게 해줬던 문제였던것 같다. 아이디어 도출이 아닌 이전에 했던 코드와 비교라고 한다면.. 도형의 삽입도 그렇고 삭제, 모두보기 모든 기능의 구현이 모두 편하게 이루어졌다. 하나씩 말해보자면,

- 1. 삽입에선 노드의 pStart를 도형으로 바꾸고 top을 pStart로 바꾸는 귀찮은 작업을 했다면 vector 클래스에서는 push_back만 해도 벡터의 마지막 원소를 추가시킨다. 이 말인 즉슨 굳이 노드를 한칸 더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서 top을 조정한다는 얘기가 되므로 이전 문제의 3~4줄의 코드가 1줄로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.
- 2.삭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. 여기서도 인덱스 값을 넘겨받아 해당 인덱스에 대한 도형을 지우고 사이에 있던 인덱스 값이 지워지면 마지막에 있던 노드를 앞으로 불러오는 코드를 짰었다면 erase(Iterator it) 하나로 원소 삭제 및 자동 벡터 조절까지 시켜주니 엄청 편했다.
- 3.모두보기 파트에서는 그렇게 달라질건 없었지만 간편해지긴 했다. 원래 포인터 주소를 한 칸 한 칸 옮겨야하는 작업을 했다면 size()연산자를 활용해 굳이 포인터의 주소를 다음으로 넘기지 않아도 for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것이 편했다.